

현대건축에 한옥의 풍경을 담다

김꽃송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최근 현대인들은 목구조, 자연재료 등 한옥 구성요소의 직설적 재현을 넘어 한옥이 가지는 생활환경의 가치에 더 주목하고 있다. 수요자들은 현대적 편의성과 구조 및 환경성능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하고 현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한옥을 원하며, 도심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한옥은 구조와 형식, 형태와 용도가 변화하며 새로운 종의 건축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한옥의 재료 및 환경기술, 구조기술 분야는 상당한 수준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 신기술의 적용을 통해 다층한옥, 현대건축과 결합된 한옥 등 새로운 건축양식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한옥이 능숙한 장인에 의한 작품으로서 전통양식을 충실하게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면, 근래에는 현대인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건축과 한옥이 결합한 사례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실험을 거듭하여 변모하는 한옥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건축과 한옥이 결합된 새로운 건축양식의 등장

새로운 기능의 부여, 공간의 확장,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후 한옥을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현대건축과 한옥이 결합된 새로운 건축양식이 등장하였다. 한옥의 이미지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기능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가로에 면한 건물은 한옥으로 남겨두고 후면의 건물은 현대건축물로 대수선하거나 현대건축물로 전면 증축하고 상부에 한옥의 지붕을 덧붙인 사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신축 한옥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한옥의 전통적 공간과 현대적 편의성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한옥이 현대건축물과 결합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한옥과 현대건축이 평면적 또는 수직적으로 구분되어 통합되는 방식과, 한옥과 현대건축이 뚜렷한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융합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다층한옥의 구현이 어렵고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한옥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체 건축물에서 한옥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면서 한옥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중이다.

현대건축과 한옥의 결합

수평적 결합: 함양재

함양재는 현대건축과 한옥이 수평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집은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구현되었다. 건축주는 전체 건물 중 일부는 3칸 한옥으로, 일부는 2층 규모의 일반건축물로 하면서 마당이 있는 집으로 지어지길 희망하였다. 현대적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한옥에서 누릴 수 있는 주거환경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한 것이다.

서로 다른 구법과 형태를 가지는 두 건물이 이질감 없이 자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가는 생활공간의 중심에 마당을 조성하고 안팎으로 과거와 현대가 소통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ㄱ’자 집의 현대건축은 ‘—’자 집의 한옥과 만나며 두 건물의 사이에는 마당이 위치한다. 두 건물 어디에서나 한옥이 보이는 마당을 조우할 수 있으며, 전통공간에서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내부로 이어진다.

수직적 결합: 청운문학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은 현대건축과 한옥이 수직적으로 구분되어 결합된 공공건축물이다. 외부에서 바라보면 두 개의 건물이 구분되어 보이지만 내부에서 동선이 연결된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서울 도심 속 옛 성곽길과 어우러지는 형태를 가지는 동시에 대공간이 필

현대건축과 한옥이 수평으로 결합된 사례



© 鄭 中 應



판교 함양재

요한 도서관의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현대건축물과 결합된 한옥 공공건축물로 계획되었다.

실제로 「건축법」상의 제약과 높은 공사비로 인해 대규모 공간이 요구되는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좁은 필지에 건축선을 지키면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외벽에서 최소 90cm 이상 처마길이를 내밀어야 하는 규제를 따르다 보면 면적은 더욱 협소해지고 충분한 마당공간을 확보하기 힘들다. 게다가 한옥을 다층으로 건립할 경우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고 구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청운문학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을 수용해야 하는 대공간은 철근콘크리트조의 현대건축물로 계획하고 지상층의 일부 면적을 목구조의 한옥으로 설계하였다. 인왕산의 자연

현대건축과 한옥이 수직으로 결합된 사례



청운문학도서관

자료: 종로구 보도자료, "한옥 처마 아래서 문학 세계에 빠지다", 2014.11.13.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이루는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대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이처럼 청운문학도서관은 주로 작은 규모의 주택으로 활용되던 과거 전통한옥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현대한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외부마감과 장식을 통해 현대건축과 한옥의 외관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콘크리트골조 상부와 입구 전면에 단장을 설치하여 전통적인 오브제를 차용하고, 현대건축의 입면과 한옥의 기와가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사한 색감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복합적 결합: 한방산업진흥센터

한옥의 확장 가능성은 현재 건축 중인 한방산업진흥센터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방산업진흥센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대건축물과 한옥이 융합된 사례이다. 한방산업진흥센터는 언뜻 보면 전체 건물이 한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연면적의 약 10.8%만이 한옥으로 설계되어 있다. 콘크리트골조와 목구조가 혼합되고, 투시형 쇼윈도·커튼월 등 현대적 마감과 전통창호·전통기와 등 한옥의 전통양식이 적절히 융화되어 전통과 현대가 소통하는 건물로

구현되었다. 이처럼 한방산업진흥센터는 한옥에 대한 비중은 적지만 한옥이 전체 건물을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면서 방문객들이 한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한방산업진흥센터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한옥의 설계기법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곁곁이 조성된 마당에서 새로움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중앙마당을 중심으로 건물이 배치되고 상층으로 갈수록 건물과 마당이 중첩되어 방문객들은 자연스럽게 전통한옥에서의 생활공간을 체험하며 건물로 출입하게 된다. 마당은 인접한 건물의 프로그램에 따라 약초마당·치유마당 등 각기 다른 테마로 구성되어 다양성을 제공한다.

한방산업진흥센터는 다층한옥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심지의 비싼 대지 비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층 이상의 다층한옥 건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다층한옥의 완결된 형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한방진흥센터는 면밀한 구조계산을 거쳐 목재와 강관을 결합한 강구조 방식을 적용하여, 현대건축과 한옥이 결합된 대규모의 다층건물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였다.

약령시장에 건축되고 있는 한방산업진흥센터는 한옥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을 특성화하고 지역 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한옥 건축물, 현대한옥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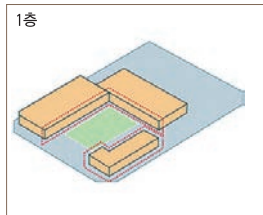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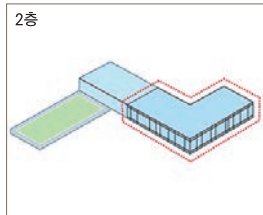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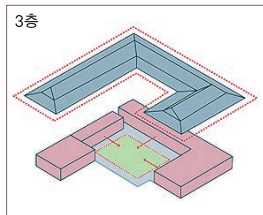
현재 한옥은 현대기술의 접목과 수용을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도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옥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짓는 공공건축물의 일부를 한옥으로 건축하는 예가 늘고 있다. 정부는 한옥의 구조 및 환경성능, 비용문제

현대건축과 한옥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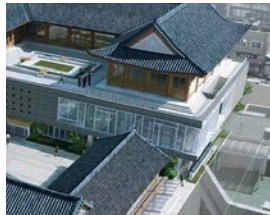


©건축사사무소 유원비

한방산업진흥센터 조감도



한방산업진흥센터 입면계획



* 청운문화도서관은 지상층과 지하층의 구조가 상이하다. 건물에서 한옥은 26.78%의 비중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일반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항,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를 개선하고 공공건축물에 요구되는 기능을 담기 위해 현대건축과 결합한 새로운 건축유형을 제안하거나, R&D 기술개발 성과를 적용한 신한옥 공공건축물을 건립 중이다. 이를 통하여 한옥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한옥문화를 확산하며 궁극적으로는 한옥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한편 한옥의 모습이 다변화됨에 따라 한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건축과 결합된 한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목구조의 비중을 줄이고 한옥의 이미지만 부각시킨 현대건축물에서 한옥의 진정성을 찾을 수 있는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옥은 주요 구조가 목구조로 되어 있고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처럼 유독 한옥에는 전통양식의 보존과 계승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현대한옥의 공간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옥의 전통구법보다는 한옥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의 가치에 더 주목하고, 한옥에서도 현대생활의 편의성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제 한옥은 더 이상 과거 건축유형의 재현이 아니며 대중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 이강민 외, 「2013 한옥건축산업 동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 이강민·오성훈·구본현·김꽃송이, 「현대한옥의 변화와 전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 국가한옥센터, 「2015 1차 한옥포럼 작품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 내 손안에 서울, “이렇게 멋진 한옥 도서관 보셨나요?”, 2014.12.1.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824844>)
- 아우름 홈페이지(<http://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num=6160#.VsPeSKRf2Uk>)
- 구가 홈페이지(<http://www.guga.co.kr/>)